

“배부르게 ‘육’ 먹으니 인기는 ‘흠런’ 이네요”

‘스토브리그’ 임동규 역 조한선

“계속 작품을 하는데 알려진 작품은 없고 대중은 모르고... 늘 마음이 안 좋고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약작같이 매달려 부끄럽지 않은 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데뷔 19년 만의 첫 라운드 인터뷰였다. 최근 용산구 한남동 미스틱스토리 사옥에서 만난 조한선(39)은 기자들과 빙 둘러앉아서 하는 인터뷰가 ‘신기하다’며 재미있었다.

조한선은 SBS TV ‘스토브리그’에서 프로야구 만년 꼴찌팀 드림즈 4번 타자 임동규를 맡았다.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팀 내 영웅과 적폐를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6년 전 영화 ‘늑대의 유혹’ 터프 가이만을 기억한 대중에게 반가움과 동시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1~2회 동안은 강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은 배부르게 먹은 것 같아요(웃음). 드림즈로 돌아온 후에는 전에 육하시던 미인들이 제 SNS에 ‘임동규 선수 육해서 미안하다’고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얼떨떨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많이 생겨요.”

날카롭고 매서운 이미지를 위해 약 두 달 동안 7kg을 감량했다. 그는 “야구선수 역을 위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했던 건 사실”이라며 “특정 선수를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을 보며 야구 공부도 많이 하고 자세 교정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스포츠 드라마라 고민이 없지는 않았는데 막상 대본을 보니 스포츠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야구팀을 위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게 신선했어요. 감독

“연기인생의 터닝포인트

특기, 안 품을 수 없어 야구공부 많이 했죠 아내도 이제 드림즈 팬”

님과 작가님을 만난 후엔 믿고 가도 되겠고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작품이라 생각했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임동규는 빛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실제로는 임동규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인간 조한선은 명랑하다”고 웃으면서도 촬영장에서는 배역에 완전히 몰입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는 스태프와 동료들이 다 극중 인물처럼 서로를 대해요. 주고받는 문자도 그렇게 하고요. 최근에 임동규로 인터뷰도 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참 재밌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배우들도 강두기(하도권 분), 서영주(차염)로 보여요.”

이어 “드림즈로 돌아온 임동규를 위해 팀원들이 임동규 응원가를 함께 부르고 춤을 추며 반겨주는 장면도 즉석에서 맞춘 것”이라며 “임동규가 드림즈에서 11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고 함께 한솥밥 먹었던 동료들이니 그런 장난을 쳐도 즐거웠던 기억을 살려 유쾌하게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한선은 실제로는 한화이글스를 빙그레 시절부터 좋아한 골수팬이다. 하지만 이번 드라마를 촬영하며 SK와이번스를 좋아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프로야구팀 한화이글스의 오랜 팬이지만 드라마 촬영에 도움을 많이 받은 SK와이번스를 사랑하게 됐어요. 만약



SBS TV ‘스토브리그’에서 드림즈 4번 타자 임동규 역을 연기한 조한선.

SK에서 시타(유명인이 구단 홍보를 위해 야구 경기 개시 전 해당 구단 유니폼을 입고 공을 치는 행사)가 들어온다면, 도

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조건해야 한다고 봐요. 정말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는 자신에게도 ‘임동규 같은 특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결혼 후에는 “가장이라는 책임감과 캐릭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저는 선택권이 많지 않은 배우였기 때문에 특기를 안 품을 수 없는 위치였어요. 한 역할을 맡으면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계속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 채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저를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내는 제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조언보다는 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줘요. 드라마를 보고 너무 재밌다고 말해주는 데와 달타라고요. 아내도 야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드림즈의 팬이에요(웃음).”

/연협뉴스

‘떡잎부터 남달랐던’ 봉준호 감독 단편 재조명

‘백색인’ ‘지리멸렬’ ...

뮤직비디오도 다시 주목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오스카상 4관왕을 휩쓸면서 그가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 찍은 단편 영화들도 주목받고 있다. 뜻밖의 20대 때 찍은 작품이지만 ‘기생충’에서 드러난 주제 의식과 날카로운 사회 인식, 풍자와 유머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떡잎’부터 남달랐음을 보여준다.

봉 감독이 ‘대외적으로’ 첫 단편영화로 찍은 작품은 ‘백색인’(1993)이다. 연세대 재학 시절 제대 후 친구들과 만든 영화 연합 동아리 ‘노란문’ 활동 당시 연출했다. 주인공은 회사원 W. 출근길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잘린 검지손가락을 발견한다. 그는 손가락을 주워 가족으로 된 도장집 안에 넣은 뒤 출근하고 전화 버튼이나 TV 리모컨을 누를 때 사용하는 등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 그러다 손가락을 잃은 노동자가 사장을 때려 체포됐다는 TV 뉴스를 본 뒤 다음 날 출근길에 손가락을 개에게 줘버린다.

1995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 후 사실상 실업자였던 봉 감독은 제의를 수락하고 시나리오 85%까지 썼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데는 실패했고, 그 기획 자체도 없어졌다.

봉 감독의 ‘인생을 바꿔 놓은’ 단편은 ‘지리멸렬’(1994)이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30분짜리 유니버시티 형태다. 대학교수, 신문사 논설위원, 검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회지도층’의 위선과 민낯을 풍자적으로 그린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퀴벌레’. 도색잡지를 즐겨보던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자신의 행적을 듣지 않으려 아슬아슬한 추적극을 벌이는 내용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골목밖으로’)는 새벽마다 조경하면서 남의 집 앞 우유를 몰래 마신 한 중년 남성 때문에 도둑으로 몰린 신문 배달 소년과 중년 남성의 쫓고 쫓기는 추적전을 그린다.

세 번째 ‘고통의 밤’은 술에 취해 노상



오스카 트로피를 든 봉준호 감독

방뇨를 하러다가 경비원에게 들키는 엘리베이터 검사 이야기다.

봉 감독이 2003년 선보인 ‘싱크 앤 라이즈’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 20주년 기념으로 만든 6분짜리 단편이다. 한강 둔치 매점 주인이 딸과 함께 온 가난한 아버지와 ‘살은 계란이 물에 뜨는지’를 놓고 내기를 벌이는 내용으로, 영화 ‘괴물’의 실마리가 된 작품이다.

2004년에는 전주국제영화제 ‘디지털 삼인삼색’ 중 한편인 ‘인플루엔자’를 선보였다. 러닝타임 30분짜리 이 영화는 한강 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남자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는 한 남자와 그를 둘러싼 풍경을 무심한 CCTV 카메라를 통해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실 이들 단편에 앞서 봉 감독 생애 첫 단편 데뷔작은 애니메이션 ‘록킹 포 파라다이스’다. 동아리 노란문 활동 때 ‘백색인’ 보다 먼저 연출했다. 고릴라가 주인공인 20분짜리 인형 애니메이션으로, 아르바이트해서 산 캠퍼터를 이용해 고릴라 인형을 일일이 움직여가며 촬영했다.

봉 감독은 뮤직비디오도 찍었다. 가수 한영에 팬이던 그는 2003년 ‘살인의 추억’ 이후 그해 9월 한영에 컴백할 ‘외로운 가로등’ 뮤비 연출을 자청했다.

배우 류승범과 강혜정이 주연을 맡고 김보배, 박노식 등이 출연한 이 무비는 다양한 커플들이 골목길 가로등 아래서 키스하는 장면들로 이뤄졌는데, 흡연 장면 등이 문제가 돼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비운의 뮤비’이기도 하다. /연협뉴스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배철수 점 스페셜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뽀빠요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재)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람(재)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00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5 MBC 뉴스 25 생생 월드컵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타치! 때때부띠(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육탑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배철수 점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11	00 더 라이브 40 제네리움 토크쇼 J(재)	40 영화가 좋다(재)	00 언니네 살롱	00 통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디큐 인사이드(재)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0 UHD 특선 디큐 기묘한 생물들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건물 스페셜

EBS1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07:30 뽀빠요 뽀빠요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댕 유치원	14:45 물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옹명명 귀여워(재)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원더볼즈	15:55 엄마 까투리(재)	<인도네시아 휴먼 로드
09:40 아옹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우리는 강으로 출근한다>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퍼 피그(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뜨끈뜨끈, 전국 기행 1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뜨거워라, 통영 바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해오와 해오	21:50 EBS 다크프라임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23:35 별일 없이 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7일(음 1월 24일 庚寅) ☎ 010-9790-8237

<p>36년생 이유 불문하고 함께해야 할 판도에 놓여 있느니라. 48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60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72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잡이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84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96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31, 64</p>	<p>42년생 기법이 가치를 드높일 것이다. 54년생 결정적인 판세로 이끄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변동수가 보이나 이를 감안 해야겠다. 77년생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틀림없겠다. 90년생 밤심하다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 02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속출하리라.</p> <p>행운의 숫자 : 20, 74</p>
<p>37년생 대중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49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그 결과의 차이가 수백에 없다. 61년생 무리하지 않음이 옳다. 73년생 관계를 의식한다면 결림 돌아 된다. 85년생 상대하기 힘들 것이다. 97년생 시간적 여유가 꼭 필요하다.</p> <p>행운의 숫자 : 09, 99</p>	<p>31년생 진행한다면 무조건 성사된다. 43년생 재반사가 걸히니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자. 55년생 평범한 보완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나은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니라. 67년생 눈앞에 놓여 있다라도 직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성취하느니라. 79년생 독창적인 방책을 세우자. 91년생 변동한다면 불길 하리라.</p> <p>행운의 숫자 : 06, 81</p>
<p>38년생 공동 탐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지금 내색할 필요는 없다. 50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62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다. 74년생 생 첫 술에 배부르랴? 86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98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p> <p>행운의 숫자 : 81, 75</p>	<p>32년생 감각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히 클 것이니라. 44년생 해결하기 곤란한 고민거리가 보인다. 56년생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해야 해결하게 되느니라. 68년생 행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느니라. 80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92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하다.</p> <p>행운의 숫자 : 35, 68</p>
<p>39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해야 할 때다. 51년생 준비하다가 하루해들 다 보내게 될 수도 있느니라. 63년생 직접 처리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75년생 일관 된다면 대원성취 할 수 있는 운로이니라. 87년생 무리하게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9년생 소모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p> <p>행운의 숫자 : 26, 50</p>	<p>33년생 변화의 추구가 절실하다. 45년생 임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니 집착하지 말라. 57년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옳다. 69년생 유용한 미래를 여는 단초를 마련한다. 81년생 한 번 빠져들면 헤어지지 못하리라. 93년생의 연해될 필요가 있다.</p> <p>행운의 숫자 : 30, 57</p>
<p>40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52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64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수긍하게 될 것이다. 76년생 세분화 할수록 이롭다. 88년생 시각적으로 쉽게 현혹 될 수도 있느니라. 00년생 썩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p> <p>행운의 숫자 : 12, 93</p>	<p>34년생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후원함이 보인다. 46년생 들 발 상황에 대처하느니라고 부심하게 된다. 58년생 도모한다면 즉시 결실을 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 70년생 정황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쫓아라. 82년생 몰입한다면 향상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94년생 빠짐없이 준비해 뒤만대 대처하기에 용이하다.</p> <p>행운의 숫자 : 40, 69</p>
<p>41년생 겉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세밀하게 캐보아야 할 일이다. 53년생 장담한다면 자습자박하는 꼴이 된다. 65년생 원만한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 77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다. 89년생 육신대로 될 일은 아니니 절대로 집착할 필요는 없다. 01년생 기존의 형태가 끝없이 반복되는 정황일 뿐이다.</p> <p>행운의 숫자 : 04, 72</p>	<p>35년생 실제로 접해 보기 전에는 속단하지 말라. 47년생 오래 가지는 못 할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59년생 실 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로다. 71년생 외관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83년생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 단계다. 95년생 새로운 일의 도모는 불길하니 현실에 충실하자.</p> <p>행운의 숫자 : 25, 56</p>